

고령자·중견 전문인 취업 돕는다

노동부, 광주에 인재은행 추가 지정·지원센터 설치

광주·전남지역의 50세 이상 고령자나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중견전문인력들의 일자리 알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조기퇴직하고 있는 고령자와 전문중견인력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광주, 대구, 부산에 '고령자·중견전문인력 인재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 최초로 광주지역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개설해 지방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민간 직업소개 기관으로, 광주에 '고령자·중견전문인력 인재은행'이 설치되면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고령자 인재은행에는 전문상담인력, 복지설계사, 교육훈련 담당인력 등이 배치돼 직업소양교육 및 직장적응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창업스쿨 등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저숙련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알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서울에만 운영중인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지방 최초로 광주에 개설돼 지방 중견전문인력 취업알선과 직업진로지도,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역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개설로 첫 직장에서 물러난 지역 중견 전문가들이 두 번째 직장 선택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 취업에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영업, 경영

자문, 기획관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상담 및 알선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에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노동청관계자는 "고령자 및 중견전문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민간 취업기관 확대 지정으로 보다 많은 고령구직자가 경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는 전국적으로 2005년 3만3천392명, 2006년 4만3천937명, 2007년 6만4천167명, 작년 6만7천381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찾아가는 시음 서비스'

11일 보해양조의 이동식 시음회장에서 고객들이 '다트 게임'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최근 소비자 접점 마케팅 일환으로 이벤트 카를 동원해 '찾아가는 시음 서비스'를 펼치며 전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전경련 "7~8개 그룹 2만명 채용"

'임금 조정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계획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졸 초임 직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7~8개 그룹이 약 2만 명의 정규직과 6천 명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5일 30대 그룹이

협의해 '대졸 초임 직감 기준 직원 임금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노동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대졸 초임 직감'에 대한

비판과 '분회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졸 초임 직감이 일자리 계획은 없고, 임금을 깎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또 "그룹별로 신규·인턴 채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되는 4월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삼성 올 대졸신입 5,500명 뽑는다

삼성이 2009년 3급(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5천500명으로 확정했다.

삼성은 11일 올해 상반기에 2천100명, 하반기에 3천4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졸자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십 제도를 처음 도입해 올해 2천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대학생 인턴 선발 계획은 예산대로 유지, 여름방학에 1천명, 겨울방학에 2천명 등 총 3천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삼성이 올해 고졸 기능직(경력직 포함) 사원 7천500명을 채용키로 한 것을 포함하면 삼성의 올해 총 채용

규모는 1만8천명에 달한다.

삼성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 5천명은 지난해 7천500명보다 2천명 줄어든 것이고 7년 전인 지난 2002년과 비슷한 규모지만, 전사회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노력을 감안해 당초 계획했던 4천명보다는 1천500명 늘린 것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응시자격은 올해 2월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로, 삼성은 자체 직무검사와 SSAT 전형을 오는 22일 실시하고, 면접은 각 계열사별로 실시하며, 오는 4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 세 일 글

"총액한도대출 통해 중기자금 지원"

천 승 희 한은 광주전남본부장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천승희(56)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본부에 배정된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또 지역의 대표적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발착형 조사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형 분석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인사에서 경제 전문직을 본점에서 초빙해 상주시킨 만큼 지역민에 대한 경제교육도 더욱 알차게 이뤄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입행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사 무소 과장, 울산본부 부본부장, 총무국 재산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학생 취업 선호도 전문직 상승

76% "기회 된다면 해외 취업"

대학생들의 일반 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준 데 비해 전문직은 늘었다.

11일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최근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 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은 26.7%로, 작년 2월 조사 때 37.0%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도전하겠다는 대답은 19.9%로 지난해(13.6%)보다 늘었다. 또 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비율은 작년 13.6%에서 이번엔

는 6.8%로 많이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을 선택하겠다는 대답은 2.9%에서 8.3%로 높아졌다.

유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도 작년 10.5%에서 15.0%로 증가했다.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구직자 1천487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75.9%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국가로는 미국이 31.1%로 가장 많았고, 직종은 정보통신직(21.3%)을 제일 선호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62-227-9940
충정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62-227-9970

SK Telecom KTF LG TeloCom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 **40%~50% 할인**

구분	대상기간	비고
SKT	10.5.30일	10.5.30일 이전 요금
KTF	10.5.15일	10.5.15일 이전 요금
LOT	10.5.15일	10.5.15일 이전 요금

영업사원 및 대리점장 모집 (광주·전남)

매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
문의: 1588-2790

(주)우리셀 파주·전남본부

이태리 소파, 식탁 50%

모날요일 이태리가구 적수원 판매점

본부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62-227-9940